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100년 되맞아본 불교와 과학의 관계맺기

상호 보완하며 공통분모 찾기 활발

"기적의 해" 과학자들은 1905년을 그렇게 부른다. 갖 스물을 넘긴 청년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1879~1955)은 이해 3월, 3주 간격으로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졌던 모든 것들의 지평을 일시에 바꿔놓은 일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등을 연이어 내어놓는다. 그로부터 1백년. 이른바 '아인슈타인 효과'는 핵 발전에서 레이저·나노 기술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놀란도록 바꿔놓았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세계' 속에 살게 된 것이다. 불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인슈타인 등에서 비롯된 현대과학의 발전이 이루어 질수록 불교의 진리가 새록새록 증명되고 있다. 현대 물리학 등으로 인해 불교는 이제 신비로운 동양의 종교에서 치밀한 합리성과 과학성을 지닌 심오한 가르침임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드라 맑은 과학의 양자론에서 연가법은 인과율 등에서, 불교의 과학성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과학의 시대, 불교는?

과학의 시대인 21세기. 불자들은 이번 세기가 불교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불교는 곧 과학이다'고 단언한다. 불교는 왜 과학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가?

서강대 물리학과 박광서 교수는 "자연과학이 밝혀낸 제 사실과 여러 가지 사고체계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유일한 종교가 불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현대물리학의 주요 성과인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 엔트로피 법칙 등과 불교의 교리체계는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은 불교에게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인 셈이다.

그것은 과학 속에서 불교를 발견하고, 불교를 통해 과학을 증명하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상대성 이론 등 과학이론은 세계와 물질에 대한 불교의 연기론적 해석에 우연처럼 부합된다. 시간과 공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는, 연가론이 말하는 듯 시간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양이며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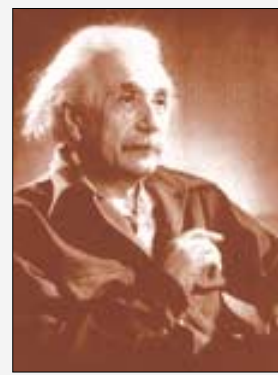
예를 들어 <현우경>에서 천상에서의 수명은 4천년이며 도솔천의 하루는 지구의 4백년이란 이야기는 상대성 이론을 통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시간과 공간 개념은 인간이 따르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뿐, 있다면 끊임없이 생멸하는 현상만 있을 따름인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밝혀낸,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는 놀라운 사실은 원자력의 발전을 가져왔다. 핵반응 전후에 사라진 1g의 질량으로 4인 가족 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은 작은 것 속에 엄청난 존재가 담겨있다는 말인 '일미진중합시방(一微塵中含十方)'을 떠올리게 한다.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 생겨났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빅뱅이론도 동양적 성주과공(成住壞空)의 반복 또는 불교의 윤회 전생설을 뒷받침하고 있고 '시작도 끝도 없다'는 우주문명에



대한 불교적 해석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결국 이런 변화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바로 철학을 넘어 문화와 예술로 확산돼 갔다. 철학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시켰으며, 예술에서는 피카소 등 미술가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관점, 미학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것은 할리우드의 영화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한축이 되기도 한다.

#맹신은 금물... 불교의 역할은?

첨단과학의 시대,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그것을 과학만능주의 혹은 과학 제국주의적인 믿음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말한다. 과학에 대한 맹신과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핵무기의 놀라운 위력을 경험했던 인류에게 이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다.

최근 관심을 모은 인간배아복제, 안락사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과학은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과학은 하나의 방편이지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는 과학에게 부족한 윤리성을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과학 발전에 의해 인간사고가



변화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연가론적 사고체계가 더 의미있게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다. 불교가 과학에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제공하고, 과학이 불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과학자들은 많은 과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과학과 종교 허물어진 경계 '신과학'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말로 미래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설명했다. 종교와 과학은 홀로 온전할 수 없기에 상호보완성의 회복이 미래과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란 것이다.

1960~70년대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서구의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는 한계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자연과학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시기에 생겨난

$$E=mc^2$$

'신과학(New Age Science) 운동'은 불교와 같은 동양사상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신과학은 기존 과학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이론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인 제프리 러프킨의 <엔트로피의 법칙>, 프리조프 카프라의 <도 자연학>,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정신과 자연> 등 저작들은 바로 기술 지상주의를 비판하고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인간과 자연, 서양과학문명과 동양사상의 조화를 꾀하는 문명 비판론적 성격을 띤다.

<엔트로피의 법칙>에서 제프리 러프킨은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비판하기 시작한 최근의 철학과 과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1981년에 발간된 이 책은 신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기원이 됐다.

<도 자연학>에서 프리조프 카프라는 자연과학 속에서의 가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서양과학과 철학이 경제학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문제로 환원해버리는 것의 문제점, 서양과학의 단순화 오류를 지적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생태주의'와 '환경운동'의 기반이 됐다.

특히 그는 불교의 우주관과 근대과학이 발견한 양자역학 상대성이론의 세계에 매우 가깝다고 전제하고 과학과 불교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과학이 불교적 세계관을 도입해야만 새로운 과학으로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았다.

강유신 기자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권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강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납골당!!

-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 ▶ 최신의 시설로 영구히 모셔드립니다.
- ▶ 설, 추석 제사천도 및 기일 축원 해드립니다.
- ▶ 언제나 연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행자모집

- ▶ 행자원 있음 (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 053)474-8228 TVbuddha.co.kr

소원성취



영험 부엉이 길상도

구암 합장

불초 소승은 인천 영흥도 토굴에 묻혀 수행중에 있는 남자로써 영험한 부엉이 길상도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때 한 선비를 만났는데, 선비께서 대사는 기골이 장대하고 기가 넘쳐나기에 만인을 위하여 알려드리니 이점 꼭 지켜주기 바라다며 하시는 말씀이, 부엉이를 그려서 집없는 이와 사업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옛 중국 문헌의 기록을 두루 살피고 정성과 원력을 세우 그려서 그 집에 3년동안 모셔두면 집없는 사람은 3년 안에 집을 사고 사업하는 이는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수년간 실천해 왔는데 별다른 일 뜻은 보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그려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달마도 한점 함께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영흥도 서래달마원 구암합장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4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 과정: ● 기초과정 : 2개월 ● 고급과정 : 2개월 ● 맥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주요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실승위주 강좌
- ▶ 개강: 2005. 6. 1 수·목반 / 금·토반 (주·야간: 4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 서울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희암빌딩 402호) 문의 : 02)267-9136. 011-307-2975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갈벃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권해드립니다.



- 제조원 : 국내(한국산)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용자,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썩씩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동 방지), 본 가방 1개 외 작은 가방 1개 추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되어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단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아까지 100% 반품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 051)507-7555, 503-7722 [계좌번호 :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